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12)<sup>1)</sup>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 I. 북미

### [미국]

#### 1. (2021년 5월 12일) 英, 코로나19 이후 우유 소매판매 7.8% 증가 - 가정소비 증가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증가

영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기간 동안 우유 소매판매가 크게 늘며 주식으로 다시 한 번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업인 칸다(Kantar)에 따르면, 금년 1월 24일 기준 영국의 우유 소매 지출이 9.7%증가한 약 34억 파운드(약 5조 3천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활동이 자제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차 또는 커피에 곁들여 우유를 소비하는 양이 크게 증가하며, 총 우유 소비량 중 차와 함께 소비되는 양이 4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해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진행된 Milk Your Moments 캠페인도 봉쇄령 기간 동안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유 소매 판매량도 전년대비 7.8%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재기 현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한 UHT 우유 판매량이 17.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재택근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며, 우유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거리두기 완화로 전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11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英, 코로나19 이후 우유 소매판매 7.8% 증가 - 가정소비 증가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증가’, 「글로벌 낙농 뉴스」 2021년 5월 12일자  
- 원문출처: ahdb.org.uk, 5월 10일자

## II. 남미

### [아르헨티나]

#### 1. (2021년 4월 26일) 아르헨티나, 10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불확실성이 팽배한 가운데 곡물 수출세 인상 검토

아르헨티나의 상무장관 Paula Espanol은 금요일 국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곡물 수출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의 옥수수 공급국이자 대두박 가축 사료의 최고 수출국이다.

이미 국제 대두 수출에 33%의 세금을 부과하고, 대두박과 대두유에 31%, 옥수수와 밀에 1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1년 동안 42.6%였다. 정부는 올해 초 수출세를 인상하고 국제 곡물 출하를 제한하기 위해 움직였다. 충분한 국내 식량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가격을 낮추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배자들이 불평하자 그 계획들은 포기했다.

CONINAGRO 농민협회장인 Carlos Iannizzotto는 “이러한 시기에 이런 발언은 우리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분열을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정치적 위협과 더불어 지난 1년 동안 폐소 가치가 하락하면서 재배 농가들이 옥수수와 대두 비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곡물 판매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0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불확실성이 팽배해 아르헨티나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수익이 필요하지만 농민들은 곡물을 비축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번 투표에서 현재 부통령인 Cristina Fernandez가 전 대통령 정부에 찬성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시장에 개입해 농장과 마찰을 빚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a mulling grains export tax hike(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세 인상 검토),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4월 26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917/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917/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Ⅲ. 유럽

#### [EU]

##### 1. (2021년 3월 17일) 세계 식량안보지수 순위, 핀란드가 선두, 일본은 제9위

농업 조사 회사 콜테바 사의 위탁을 받아 이코노미스트지가 정리한 세계의 식량안보 지수가 공표되었다. 본 조사는 201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20년은 113개국을 대상으로 100을 가장 높은 값으로 하여, ‘식량 소득에 대한 부담(affordability)’, ‘입수 편의성(availability)’, ‘품질·안전성(quality and safety)’, ‘자원 및 회복력(resources and resilience)’의 네 가지의 주요 항목을 59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의 점수가 계산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랭킹은 2020년에 “자원 및 회복력(resources and resilience)”이 주요 항목에 추가된 데 따른, 2012년 이후의 수치도 다시 집계됐다.

본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식량 안보 지수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전년에 이어 핀란드에서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른 85.3이었다(그림). 이어 아일랜드(83.8), 네덜란드(79.9), 오스트리아(79.4)로 유럽 연합(EU)회원국이 이어졌다.

항목별로 각각 최고치를 보면, ‘소득에 대한 부담’은 아일랜드와 덴마크의 92.2, ‘입수 편의성’은 핀란드의 82.0, ‘품질·안전성’은 캐나다의 94.5, ‘자원 및 회복력’은 노르웨이의 73.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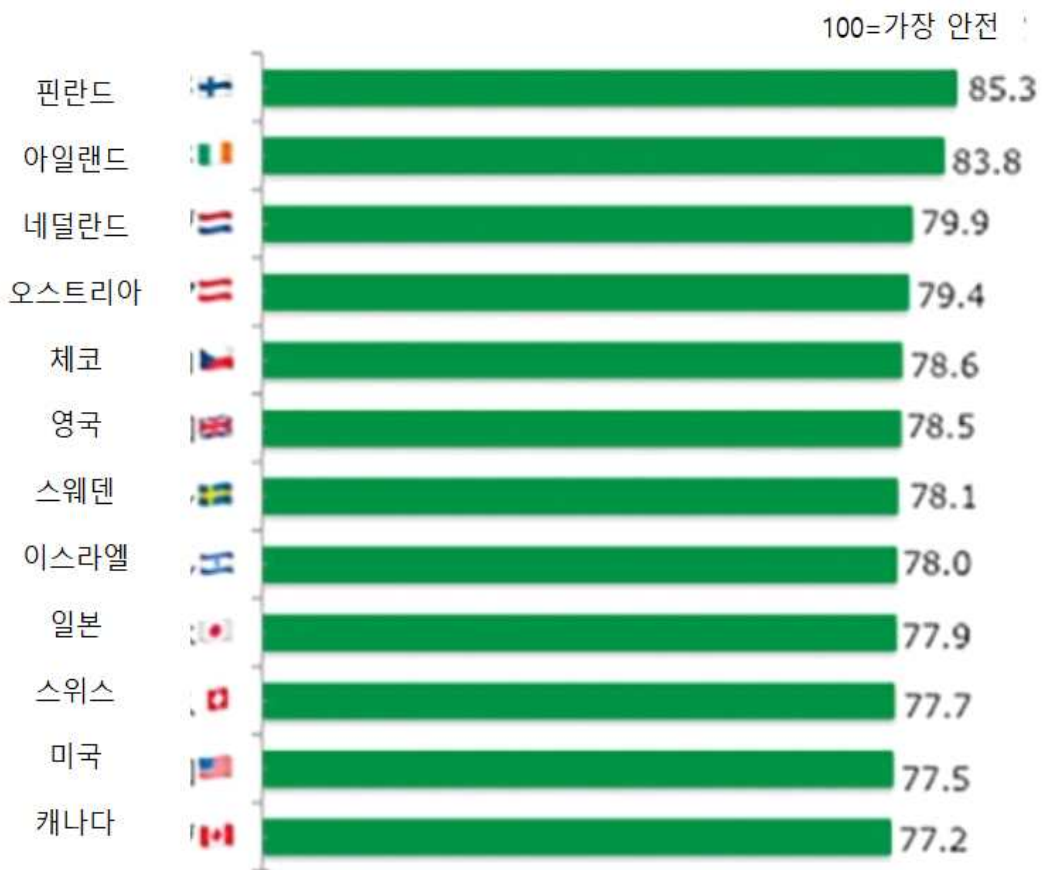
조사에서는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유행 초기엔 식량안보 지수가 높은 나라도, 필수품의 파스타나 미국 등의 사재기로 인해서 슈퍼의 식품 선반이 바닥나는 등 파장의 크기에 언급되어 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식량 안보 상황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개선 경향에 있었지만, 유행 지난 2019년에는 집약적 농업 기후 변화, 천연 자원의 감소 등의

요인이 함께 악화로 돌아서면서 2020년의 유행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전년부터 0.5포인트 떨어진 77.9로 하였으나 전년과 같은 9번째이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에 대한 부담’은 6번째, ‘입수 편의성’ 8번째로 비교적 상위에 있는 반면, ‘품질·안전성’은 34번째, ‘자원 및 회복력’은 15번째이다.

<그림 1> 국별 식량안전보장지수 상위 12(2020년)



자료: 세계경제 포럼 공표자료로 부터 ALIC 작성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海外情報-「畜産の情報」2021年5月号

## [영국]

### 1. (2021년 5월 20일) 英 소비자 5명 중 1명, 코로나19 이후 동물성 식품 섭취 꺼려. 봉쇄령 이후 소비자 43%, 첫 식물성 우유 구입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영국 소비자 5명 중 1명이 동물성 식품 섭취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건 조직인 비건 소사이어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응답자의 약 12%가 달걀과 유제품 섭취를 줄였고, 7%는 달걀과 유제품은 물론 육류 섭취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성 식품 섭취를 줄인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5%는 건강 30%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섭취를 줄였고, 21%는 동물복지를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 중 43%가 봉쇄령 이후 처음으로 식물성 우유를 구입했고, 특히 오트밀크가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9%는 계속해서 식물성 우유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영국인의 39%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싶다고 응답했고, 밀레니얼 세대 중 25%가 코로나19 이후 식물성 대체식품 섭취를 선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英 소비자 5명 중 1명, 코로나19 이후 동물성 식품 섭취 꺼려 - 봉쇄령 이후 소비자 43%, 첫 식물성 우유 구입’,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5월 20일자  
- 원문출처: vegconomist.com, 5월 17일자

## [아일랜드]

### 1. (2021년 5월 24일) 아일랜드 소비자,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소비 늘려. 35세 미만 소비자 중 48%가 유제품 소비 늘려

아일랜드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35세 미만 소비자들의 유제품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아일랜드낙농위원회(N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35세 미만 소비자의 48%가 유제품 소비를 늘렸고, 특히 자녀를 둔 소비자들의 유제품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우유가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50% 이상이 우유를 지속가능한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아일랜드 가정에서 일주일에 약 6.34리터의 우유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계관계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천연 영양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봉쇄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유제품 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밀레니얼 세대의 식물성 대체식품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치즈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며 지난해 3월 대비 더 많은 양이 소비되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아일랜드 소비자,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소비 늘려 - 35세 미만 소비자 중 48%가 유제품 소비 늘려’,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5월 24일자

- 원문출처: agriland.ie, 5월 18일자

### Ⅲ.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 1. (2021년 5월 14일) 뉴질랜드 낙농계, 정부의 코로나 격리비용 지원 제외로 실망. - 낙농업의 일손 부족난 해결을 위한 이주노동자 입국 등 정부 대처 요구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입국자 격리 프로그램(MIQ) 수정안에 낙농업 근로자가 제외되면서 낙농업계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뉴질랜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정 직업군에 대해 격리 비용을 지원하는 MIQ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에, 최근 향후 10개월간 2주당 약 500개의 공간을 산업분야 근로자에게 할당할 것이라 발표한 가운데, 농업에서는 양털깎기 근로자 40명과 농업용 기구 전문가 125명을 포함시켰으나, 목장 근로자는 제외되었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입국 문제 등으로 일손 부족난을 겪어 온 낙농가연합은 크게 실망하며 장시간 근로에 지친 낙농가들의 지속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미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해 있으나 체류 허가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에 빠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경영] 뉴질랜드 낙농계, 정부의 코로나 격리비용 지원 제외로 실망 - 낙농업의 일손 부족난 해결을 위한 이주노동자 입국 등 정부 대처 요구’,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5월 14일자

- 원문출처: newshub.co.nz, 5월 11일자

## IV. 아시아

### [중국]

#### 1. (2021년 5월 6일) 호주에 강경한 中 “경제대화 무기중단“

중국과 호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양국간 전략 경제대화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성명을 내고 호주 정부의 중국에 대한 냉전 사고를 비난하면서 '중국·호주 전략 경제대화'의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최근 호주 정부의 일부 인사가 냉전 사고와 편견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국 간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치는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양국 협력과 관련해 보인 이런 태도를 고려해 발개위는 호주 정부와 함께 주도한 전략경제대화의 모든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중국 기업에 빌려줬던 항구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대중국 제재를 강화한 데 따른 중국의 반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 국방부는 최근 다윈항의 장기 임대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이 항구는 2015년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에 99년 만기로 임대된 것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국방부, 국가안보 기관의 의견을 받아 항구 소유권과 관련한 호주 정부의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윈항은 미군의 태평양 작전 거점이라는 점에서 호주 정부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원 문제와 관련해 국제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소고기와 보리, 와인 등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간의 갈등이 깊어져왔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호주에 강경한 中 “경제대화 무기중단”’, 2021년 5월 6일자 기사

- 원문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0602109919607006&ref=naver](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0602109919607006&ref=naver)

## [네팔]

### 1. (2021년 5월 18일) 네팔, 코로나19 확산에 낙농업계 비상 - 이동제한조치 강화로 남은 우유 처리에 골머리

네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이동제한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낙농업계가 남아도는 우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네팔낙농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네팔에서는 하루 약 320만 리터의 우유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동제한조치 시행 이후 소비량이 높은 도시 지역이 폐쇄되면서 우유 사용량이 130만 리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낙농가와 유업체는 남아도는 우유를 분유로 가공할 여력도 부족해 이를 처리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네팔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약 8천 명씩 발생하고 하루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팔낙농협회는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는 물론, 집유, 가공, 유통까지 모든 생산망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낙농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게 이들을 필수 인력으로 분류하고 백신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네팔, 코로나19 확산에 낙농업계 비상 - 이동제한조치 강화로 남은 우유 처리에 골머리’,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5월 18일자

- 원문출처: english.khabarhub.com, 5월 17일자

## V. 글로벌

### 1. (2021년 4월 28일) 지난해 세계 식품 시장, 10% 성장 - 홈쿡 및 홈베이킹 증가로 유제품, 음료 및 식품 판매 크게 증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료품 시장이 대폭 성장했다. 최근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업인 칸다(Kanta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직접 요리 또는 베이킹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주류 섭취량도 증가함에 따라 식료품 시장이 10% 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 판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유제품, 음료 및 식품 판매량이 가장 크게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홈쿡 및 홈베이킹 증가로 통조림, 고기, 설탕 및 감미료 등 판매량도 눈에 띄게 늘었고, 장기간 봉쇄로 피로도가 쌓인 서유럽 국가의 소비자들의 주류 소비가 급증하며 주류 매출이 2019년 대비 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이커머스 시장도 크게 성장하며 전 세계 식품 판매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지난해 세계 식품 시장, 10% 성장 - 홈쿡 및 홈베이킹 증가로 유제품, 음료 및 식품 판매 크게 증가’,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4월 28일자

- 원문출처: thecattlesite.com, 4월 24일자

## 2. (2021년 5월 24일)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 발표

### <개요>

OECD는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필요한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별로 핵심 정책 과제를 권고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구조개혁 방향은 구조개혁을 위한 세 가지 프레임(①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② 자원 재배분 촉진 및 생산성 향상, ③ 전환 지원)과 국제협력이 필요한 네 가지 분야(의료·기후변화·무역·조세) 제시하였다.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구조개혁 분야 및 주요 정책권고)

- ① (의료) 필수 의약품의 공급망 확보 전염병 경보시스템 구축 등,
- ② (기후변화) 기후협약 이행 탈탄소화 전략 수립 국가 간 조정 등,
- ③ (무역) 새로운 문제(디지털화 등)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 합의 등,
- ④ (조세) 디지털 과세, 세원잠식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지속 등

팬데믹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확대 → 국제협력을 위한 권고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 <활력있는 회복(vibrant recovery)을 위한 구조개혁 방향>

#### 1. 경제회복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 제고

회복력(resilience)은 ① 위기 감지·방지 능력, ② 위기 시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능력, ③ 위기 후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능력 등을 총칭하는 의미한다.

[회복력] 의료 사회안전망 인프라 등 기초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규칙 등 공공 거버넌스 신뢰 향상 노력 제고이다. 금번 팬데믹은 세계 경제의 복원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노출 ⇨ 경기침체의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구조화될 우려로 알려졌다. 의료 분야는 부족한 의료 인력과 시설,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적 투자의 미흡, 과도한 보험 외 비급여 지출(out-of-pocket payment)에 따른 의료접근성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미래 위험 감소를 위해 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부문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탄소세 등 가격시그널을 도입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탄소집약도가 높아지

는 경향 ⇨ 팬데믹 이후 경제의 회복 방향 설정 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전 세계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OECD 회원국 및 G20 국가들의 탄소가격은 파리 협정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회원국 등 탄소가격의 81%가 EUR 60/tCO<sub>2</sub>)를 하회한다.

## 2. 자원 재배분(reallocation) 촉진 및 생산성 향상

진입장벽 해소, 시장경쟁 촉진, 구조조정 제도 개편 등 기업의 혁신·역동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 재배분을 촉진한다. 혁신적 기업들이 노동, 자본, 기술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치하여 상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마련 ⇨ 생산성 제고한다.

자원 재배분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방지를 위한 전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소득격차가 직업재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경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 등의 경험 공유이다.

## 3. 회복 및 전환(transitions)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구직지원·소득보장 등 강화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회원국(17개)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 중이며, 노동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정책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확대(GDP대비 0.25%) 시 재취업 가능성이 노동시장 진입 규제 여부에 따라 6%p(규제 無) 또는 3%p 이하(규제 有) 수준이 증가한다.

학교교육 중단 등으로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소외학생 지원 및 교육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2020년 4월 이후 전 세계 대부분(90% 이상)의 학생이 학교교육 중단의 영향을 받았으며, 온라인/원격/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 브리프]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0, (2021년 5월 24일)

- 원문출처: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 (2021.5.10.)(Going for Growth 2021: Shaping a Vibrant Recovery, 2021.4.14.)